

## '22년 항공안전 투자 규모는 4조 2,387억원

- 7월 20일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시범운영('20~'22년) 후 첫 공시... 39.6% 증가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'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'21년(3조 364억 원)에 비해 1조 2,023억 원(39.6%) 증가한 4조 2,38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  - 이는 코로나-19로 위축되었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\*한 결과로써,
    - \* (항목별 규모) 항공기 정비비>엔진·부품 구매비>경년항공기 교체비 순
  - 경년항공기를 교체하여 항공기 평균기령은 0.8년 개선('21년 평균 12.9년 → '22년 12.1년, △0.8년)되었고, 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해 항공기 운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'20년부터 항공운송사업자, 공항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해왔다.
  - 공시를 통해 항공안전과 관련된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 추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업계는 취약 분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"안전투자 규모만으로 항공사의 안전 수준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나, 항공사는 '안전'이 가장 큰 자산이며, 해당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지표라는 인식 하에 각 기업의 운항량, 인력 등 규모에 걸맞은 적정 투자를 통해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나갈 필요"가 있다고 강조했다.
- 공시자료는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(www.airportal.go.kr)에서 7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항공 안전정책관 항공 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동철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배 (044-201-4254)
			주무관	이재석 (044-201-4247)



- (도입취지)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적정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·시스템·장비 등의 적정 투자 뒷받침 필요
  - 항공안전 증진에 직간접 영향이 인정된 투자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, 업체별 안전관리 의지·노력 등을 소비자가 직접 판단
    - \* 기업공시 회계내역중 안전분야 항목만 추려내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·인력 최소화
  - (기대효과) 제도 정착시, 항공사 신인도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한 자발적이고, 지속적인 안전투자 유도 기반으로 작용 기대

※ (해외 사례) 유사제도 사례는 확인되진 않았으나, 기업공시(美증권거래위) 내역을 통해 ①정비 비용+②부품구매 비용\*은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

☞ 주요 항공사(FSC) 매출 대비 정비·부품 투자비율 비교('21~'22년 평균, %)
   
- 델타 4.9, 아메리칸 6.8, 루프트한자 7.2, 에어프랑스 11.1 vs 대한 10.0, 아시아나 16.4

## □ 그간 추진경과

- (근거마련)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(안전투자 공시) 신설('19.11 공포)
  - \*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('22.11.27) 시행 ('20~'22년 시범운영)
  - 항공안전투자공시 세부기준 및 절차(국토부고시, '20.9 제정)
- (시범공시) 제도 취지·절차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시범운영('20~'22)
  - 동 제도의 조기 안착 및 자발적 안전투자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, 제도상 개선필요 사항 등 발굴
- (설명회) 정식 시행전 제도 취지·절차 설명 및 의견수렴('22.1.27)
- (공시내역 접수) 공시대상 19개사\* 자료 접수 완료(3.31)
  - \* (제출기업 현황) 공항운영자 2, 국제·국내운송사업자 11, 소형운송사업자 6
- (내역 확인) 투자내역 제출자료 확인 및 보완(~6월말)
  - \* (검토위원회 구성·운영) 회계 전문가 1, 항공분야 전문가(교수 등) 3명

**'22년 투자실적(총괄)**

- (항공운송사업자, 11) 총 3.98조원 투자, 전년(2.73) 比 1.26조원(46.1%) 확대, 이 중 FSC는 1.01조원 ↑(50.6%), LCC는 0.25조원 ↑(33.9%) 증가
  - (주요 항목) 정비 비용(+0.56조원), 엔진 등 부품 구매·임차(+0.44), 경년항공기 교체\* (+0.25조원) 등 항목에서 큰 폭으로 투자 확대
    - \* 대한항공·진에어 각 2대, 아시아나·에어부산 각 1대 총 6대 경년항공기 교체
  - (투자효과) 경년항공기 교체를 통한 기령 개선, 예비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한 항공기 운용 안정성 제고 기대
    - (항공기) '22년 전체 20대 신규등록, 16대 말소되어, 운용 대수는 370대, 평균 기령은 '21년 12.9년에서 12.1년으로 △0.8년 낮아짐
      - \* (평균 기령) 말소 항공기(16대) 20.6년 vs 신규 등록 항공기(20대) 6.1년
    - (예비 엔진) 쏘항공사가 예비로 확보중인 항공기 엔진은 '22년말 기준 151대로, 전년(134대) 대비 17대 증가(12.7%)
- (소형운송사업자, 6) 총 93억 투자, 전년(211억) 比 △117억(55.7%) 감소
  - '21년 예비항공기 도입(유아이헬리 등, 118억) 완료에 따른 기저 효과
    - \* (항목별 증감) 항공기 교체 △118억, 정비비 +10억, 부품 구매 △8억, 기타 △1억
- (공항운영자, 2) 총 2,486억 투자, 전년(2,902억) 比 △416억(14.3%) 감소
  - 항행안전시설, 활주로 등 공사 연차별 투자일정에 따른 변동 요인
    - \* (항목별 증감) 항행안전시설 △93억, 이착륙시설 △597억, 조업시설·장비 등 +288억

## 항공운송사업자 안전투자 주요 항목별 분석 (투자규모 順)

- ① (정비·수리비) 2년간('21~'22) 3.63조원('22년 2.1조, 전년 比 0.56조 ↑)  
지출, '22년 항공기 대당 평균 56.6억원 지출(전년 比 15.2억 ↑)
  - 항공기 운용 규모가 큰 항공사일수록 수요 회복에 맞춰 정비비 항목의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한 경향 확인
  - \* (KE) 157대 +4,082억, (OZ) 77대 +673억, (JJ) 37대, +378억, (JN) 26대 +215억
- ② (경년항공기 교체) 2년간 1.67조원 지출('22년 0.96조, 전년 比 0.25조 ↑)
  - '22년에는 4개 항공사가 6대 경년항공기 교체(신규 B737·A321 각 3대)
  - \* (OZ) '22년 1.9조(△0.14), (JN) 0.3조(△0.09), (KE) 0.3조(순증), (AB) 0.2조(순증)
- ③ (엔진·부품 구매) 2년간 1.23조원('22년 0.84조, 전년 比 0.44조 ↑) 지출,  
'22년 항공기 대당 평균 약 22.6억원 지출(전년 比 12.1억 ↑)
  - \* 전체 항공사 예비엔진 확보율은 '22년말 18.8%로 '19년(15.7%) 比 3.1%p 증가
  - KE 64대(17.0%), OZ 43대(22.6%), JN 18대(34.6%), AB 11대(25%), JJ 11대(14.5%)

## '23~'24 투자계획(총괄)

- (항공운송사업자) '23년 9.36조원 투자 계획, '22년 대비 5.38조원 (135.1%) 증가한 규모, '24년은 10.78조원 계획(전년 比 1.41조원 ↑)
  - 대부분 항목 투자확대 계획중이며, 특히, 경년항공기(+3.93조원), 정비비(+1.24조원), 예비항공기(+0.16조원) 등은 큰 폭의 확대 계획
  - \* ('23년) 대한항공, 아시아나, 진에어, 티웨이, ('24) 대한항공, 아시아나, 에어부산, 티웨이
  - 항공기 정비 비용도 항공기 도입 계획에 맞춰 지속 확대 계획
  - \* '21년 1.53조원(30.4%) → '22년 2.1(36.7%) → '23년 3.33(59.1%) → '24년 3.45(35%)

**참고3**

**안전투자 공시 대상 기업별 투자현황**

(억원, %)

구분	투 자 실 적				투 자 계 획			
	'21년 (A)	'22년 (B)	증감		'23년 (C)	'24년 (D)	증감	
			B-A	%			D-C	%
총 계	30,364	42,387	12,023	39.6	97,513	111,178	13,665	14.0
항공사	27,461	39,901	12,439	45.3	<b>93,729</b>	<b>107,921</b>	<b>14,192</b>	<b>15.1</b>
국내국제운송 (FSC)	27,251	39,807	12,556	<b>46.1</b>	<b>93,592</b>	<b>107,779</b>	<b>14,186</b>	<b>15.2</b>
대한항공	8,785	18,413	9,627	109.6	53,295	58,456	5,161	9.7
아시아나항공	11,144	11,593	449	4.0	27,233	30,668	3,435	12.6
(LCC)	<b>7,321</b>	<b>9,801</b>	<b>2,480</b>	<b>33.9</b>	<b>13,064</b>	<b>18,655</b>	<b>5,590</b>	<b>42.8</b>
제주항공	1,195	2,247	1,052	88.0	4,020	3,240	△780	△19.4
에어부산	932	2,602	1,669	179.1	1,910	5,449	3,539	185.3
진에어	4,539	3,917	△621	△13.7	4,774	6,309	1,535	32.1
티웨이항공	323	361	38	11.8	1,177	1,346	169	14.3
에어서울	104	236	132	127.1	490	371	△119	△24.3
에어인천	50	114	63	125.7	130	182	52	39.8
에어프레미아	97	128	32	32.6	239	92	△147	△61.4
에어로케이	30	72	42	142.9	168	1,489	1,320	785.3
플라이강원	51	124	73	143.3	155	176	21	13.4
소형운송사업자	211	93	△117	△55.7	<b>137</b>	<b>143</b>	<b>6</b>	<b>4.2</b>
하이에어	30	25	△5	△16.0	27	29	1	5.4
글로벌리아항공	21	18	△3	△14.2	18	18	-	-
헬리코리아	20	20	0	1.9	22	15	△7	△31.9
엔에프에어	1	1	0	45.6	1	1	△0	△15.6
유아이헬리제트	130	15	△115	△88.7	25	40	14	56.8
더스카이	10	15	5	50.6	43	40	△3	△6.7
공항운영자	2,902	2,486	△416	△14.3	3,784	3,256	△527	△13.9
한국공항공사	800	741	△58	△7.3	1,382	1,191	△192	△13.9
인천공항공사	2,103	1,745	△358	△17.0	2,401	2,066	△336	△14.0

**참고4**

**국내·국제운송사업자 항목별 투자 현황**

(억원, %)

항목	총계			
	합계		증감	
	21년	22년	금액	비율
<b>항목합계</b>	27,251	39,807	12,556	46.1
① 항공기의 정비·수리·개조 ③ 정비시설·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	15,327	20,953	5,626	36.7
② 발동기·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	3,931	8,373	4,443	113.0
④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·유지관리 등	10	26	16	155.5
⑤ 항공종사자·직원의 교육훈련	578	571	△6	△1.1
⑥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	1	0	△1	△99.2
⑦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	0	1	1	653.3
⑧ 항공안전 전산관리시스템	274	254	△20	△7.3
⑨ 기타 안전지출	25	19	△7	△25.9
⑩ 경년항공기 교체	7,105	9,609	2,504	35.3